만법의 진리가 바로 내 심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 A29면에서 계속

도 없이 그렇게 화창한 날씨에 온 누리에 꽃이 필 수 있고 열매가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는 바로 무르익어서 온 누리의 여러 부처들이 다 그 맛을 볼 수 있는 불국토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난 글자 한 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게 보는 대로 글이요, 말이요, 법이요, 이것이 말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한 데 떨어뜨린다면 안 되는 진실, 그 진실을 그 마음 가운데에는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거지든 부자든 다 누구나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질하고 못 배우고 했으니까 나는 이 부처님 법도 못 배우지.' 이런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소동파도, 그렇게 영리하고 말을 타고 가면서 병풍 글씨를 다 외워 두는 그 소동파도 그 승허 선사한테는 바로 대답 한마디 못하고 분해서 묵묵히 달아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건 글자로 따지려도 따질 수 없고, 글귀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귀에 들어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깨달아서 결국은 그 글귀의 말씀을 말씀대로 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이 한데 떨어지면 말인 것이고, 그 말이 말씀이 된다면 바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한데 떨어뜨릴 게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버릴 게 없기 때문에 산천초목의 바로 그 푸른 잎은 전부 여러분의 몸이 되고, 폭포수가 흐르는 것은 바로 지혜로서 설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이치를 잘 안다면 어느 거 하나 떨어뜨려서 던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던질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 했던 것입니다. 너무 문이 많고 너무 묘하기 때문입니다.

사후에도 업보를 받게 되는지요

질문 : 우리가 업을 짓고 죽으면 그 사후에도 업보를 받게 되는지요.

답변 : 영적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습을 가지고 우리가 고정되게 나가기만 하면 그것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차원이 멈춰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깐 이 진리가 멈춰 버리지 않고 찰나찰나 돌아간다는 걸 아시면 그것을 거기에다가,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생각나고 행하고 말하고 했던 것을 거기에다가 다시 놓을 때는 바로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의 문제라는 건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알면 사후에도 그렇게…, 즉 말하자면 눈멀고 귀머거리고 그렇지를 않으니까요. 현재에 알면 다른 미래에도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어저께 모른 것이라면 오늘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후 일이라는 것은 오늘 겸했다는 얘깁니다. 과거 일이 현재로 겸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러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억겁을 거쳐 온 것이 한데,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억겁이 그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그 많이 거쳐 오면서 축소됐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콩나무도 그냥 콩나무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만약에 콩나무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콩나무도 콩나무로 되기 싫다, 하여튼 콩나무에서 좀 더 화해서 어떠한 다른 모습으로 돼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콩나무라는 그 콩나무 범위 내에서 벗어난 겁니다. 콩씨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도 인간에서 벗어난다면, 바로 '자신'으로서 벗어난다면 바로 중생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나 또는 과거의 업보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없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지어서 그렇게 자꾸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거기에서도 자기도 고통스럽고 그 사람도 고통스럽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앙갚음을 했으니까 나도 앙갚음을 하겠다는 생각으로서, 참, 자기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앙심을 품게 되지마는, 그거는 또 좀 덜합니다. 그네 대의 가정, 즉 말하자면 자식들이나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모두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몇 사람이 업보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고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고, 엉클어지고 설크러지고 이런 것이 사후에 돌아오는 거죠. 현재에도 들어올 뿐 아니라 사후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 부모를 그 어떠한 문제의 건으로 인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의 국록을 먹게 되는 사람인데 아, 그 사람이 말을 한마디 인군 앞에서 해 가지곤 밥줄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반으로서, 밥줄이 끊어진 것보다도 양반으로서의 그…, 옛날에는 그런 걸 중시했죠.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고 조상을 만나 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주 그 집을 증오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그 아들이 말입니다, 하도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참 항상 그 방에서 나오시질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집에서 또 원수를 갚는다고 하다가 고만 미수에 그치곤 말았답니다.

그 뒤에 그 아버지가, 방에서만 계시던 그 아버지가 참 이 마음으로 무척 닦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후에 머리가 허옇게 다 돼 가지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애야, 네가 그렇게 한 까닭에 원수는 원수대로 갚지도 못하고…. 그게 갚아서 갚아지는 일이 아니니라. 그렇게 네가 했기 때문에, 요다음에 삼 대에 내려가서 태어나는 네 손주가 그렇게 또 죽게 됐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면하겠습니까?" 하니까 "그걸 풀려면 인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을 말고 그 집 가서 매일같이 아침 문안을 드리면서 그 전자의 그런 모든 것을 그저 잘못했노라고 항상, 하루 한 번씩 가서 사과를 하되 백 일을 하라." 그러더랍니다. 백 일을 해야 그것이 녹는다고 하더랍니다. 그 사람 마음들이 녹아야 그게 업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 살아나가는 것도 지금 고정된 관념으로서의 생각도, 고정된 행도, 고정되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찰나찰나 우리가 사는 거지 고정되게 그냥 뭐, 백 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백 년을 산 게 없습니다. 여직껏 걸어 다니셨다 할지라도 걸어 다니신 그 자체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살림살이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짓는 거, 그것은 마음의 영원한 그 자기의 전체 컴퓨터, 자기를 리드해 가지고 가는 자연 컴퓨터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이죠. 그 잠재해 있던 그 자체가 바로 자기가 한 거를 일기장 써 놓듯이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고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받게 돼 있거든요.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요. 그러니 사후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사후를 물을 게 뭐 있습니까?

>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묘법을 두고 그냥 가시렵니까!**
>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냥 가시렵니까!**
> **그 만법 좋은 거를, 묘법을 두고!**

그런데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스럽기 때문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문젠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도리를 모른다면 반드시 엊그저께 과거의 나를…. 만약에 우리 부모들을 죽였다든가 또는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해 갔다든가 또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나를 갖다가 물씬 그냥…,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나 전부 죽이는 게 됐다 이랬을 때에 그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다면 그것이 누적돼서 사후의 일로 벌어져요.

현실에도 너로 인해서 내가 망했다든가 너로 인해서 내 가족의 밥줄이 끊어졌다든가 내 돈을 떼어먹고 어디로 가서 우리 식구가 그 십 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이렇게 고초를 받고 지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엉클어진 이 문제를, 즉 말하자면 고정되게 내가 증오하고 있거나 그런다면 그것이 인제 사후 일로 벌어집니다. 현재에 내가 또 갚을 수도 있고요. 그 놈을 징역을 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아주 반쯤 죽여 놓고 '저희 죽고 나 죽는다' 이렇게 또 벌어지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벌어져서 물씬 두들겨 주고 말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거기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질문 : 요즘은 이런 저런 일로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하여 법당에 가서 좀 앉아서 참선하고 싶은데 요즘은 상황도 이러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가요?

답변 : 될 수 있으면 서나 앉으나, 누우나 일을 하나…, 이것을 입선, 좌선, 와선, 행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할 때도 자기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뚱이 속의 자기 주인공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자기 내면의 주인공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차가 있다면 무슨 차든지 운전수가 몰지, 차가 운전수를 몰고 다니는 법은 없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주인공이 자기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는 것은 운전수가 차 끌고 다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차가 고장이 나면 운전수가 고쳐서 끌고 다닙니다. 딴 사람이 해 주지 않습니다. 꼭 운전수가 어디 뭐, 차 고치는 데로 가든지, 자기가 손수 고치든지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를 내가 끌고 다니는 것과 같은데, 그 주인공이란 수억겁 광년 전부터 나를 진화시키면서 끌고 온 장본인입니다. 지금 현재만 운전수가 아니라 과거도 운전수였고, 지금 현재도 운전수고, 미래도 운전수일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운전수를 믿고,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생각이 나면 거기다가 맡겨야 하는 거죠. 일하면서 부아증이 일어나면 '그것도 당신밖에 해결할 수 없어.' 하고 거기 놓고…. '해 주시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입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앉아 있다가도 생각나면 거기다 놓고,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따로 정해 놓지 말고 시시때때로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나한테 닥치는 대로 거기다 놓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주고, 거기서만이 해결해 주고, 거기서만이 낫게 해 주고, 거기서만이 화목하게 해 주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그러는 데도, 부부지간에 살고 부모 자식지간에 살고 이러는데도요, 항상 나쁘게 생각을 하고, 밉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공부를 안 한다고 "너는 평생 가도 그 꼴밖에 못 돼!" 하고 욕을 한다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일이 더 많지 어떻게 잘하는 일만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잘못하는 대로 욕을 해 대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냥 신경질을 내고 이런다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그대로 그냥 되는 겁니다. 팔자 운명이라는 게 달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두 그런 상대성 원리, 인연에 따라서 아주 곧바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건 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쓰고 아주 부드럽게 행동하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 속을 안 썩이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속을 삼분의 일을 썩이는 사람도 있고, 반을 썩이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썩이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속이 상하든지 저렇게 속이 상하든지, 속 썩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기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으로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부드럽게 하시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놓고 부드럽게 해야 그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냥 '옛다, 봐라.' 이렇게 그냥 포기해 버린다면 아니 됩니다. 컴퓨터도 사람이 입력을 해 놔야 쓰듯이, 꼭 자동적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 놓고 부드럽게 행동을 하시라 이겁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지 홍
주 지 상 진
총무(원주) 벽 산
교 무 거 진
재 무 심 곡
서 무 효 능
서 무 보 보 휴
대 중 일 허, 효 진
지 휴, 혜 명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업무과장 이진미(소봉)
경리계장 공성희(여진)
업무계장 최진호

재단법인
천년고찰청련사

이사장 상 진
이 사 해 경, 지 홍, 심 곡, 벽 산
거 진, 효 능, 최종남, 이종수
감 사 최인귀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추모관)
전 무 고영민 상 무 장진우
이 사 박광수 홍 보 박범경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Tel. 031)836-2439, 1080 / Fax.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